

구운 암·수탉농고 은반지 예물교환

북한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새생활 방식을 전파했으나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과 풍속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풍속은 가족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지난 수백년동안 한민족의 의식을 지배했던 유교사상이 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형식군은 향미라는 처녀를 만났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3시 만수대극장옆에 있는 분수대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평양 시민들이 보통 약속을 하는 장소가 이곳이다. 이 시간에 못

서든 향미와 같이 살겠다』고 선언했다. 그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결혼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허락을 받기 위해 강하게 나간 것이었다. 부모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한달후에 결혼을 허락했다.

타스통신 前평양특파원이 본

북한의 풍물



< 3 >

직도 북한주민들에게 남아 있다.

북한에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남아있으나 새로운 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들은 새로운 풍조를 받아들이면서도 관습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평양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의 결혼을 통해 북한의 결혼풍속을 소개하려 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실존인물이나 당사자들의 사전요청에 의해 가명을 사용했다.

형식군은 60년대초 평양의 인텔리가정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북한청년중 한사람이었다.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뒤 여행사에서 영어통역원으로 근무했다. 형식군은 어느날 양복을 맞추기 위해 집에서 멀지 않은 양복점을 찾아갔다. 북한사람들은 대부분 양복을 맞추어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양복점에는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재봉사 처녀가 있었다. 이 처녀는 형식군에게 『참한 처녀가 있다』며 소개를 자청했다. 북한에는 중매결혼이 많으나 연애결혼도 많아져 최근에는 연애결혼이 중매결혼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관습 점차 변화

재봉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사진이 너무 작아 잘 모르겠으니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봉사는 형식군을 재봉실로 데리고 가 가위를 들고 있던 처녀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형식군은 그옆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 처녀는 긴 머리칼과 선량하게 보이는 큰눈으로 그의 마음을 끌었다.

형식군은 『저 처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봉사는 이틀날 그 처녀에게 『좋은 충각을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들의 약속장소로 흔히 애용되는 평양 시내 만수대극장옆 분수대.

자하르첸코 이완

타스통신 서울지국장

가정집서 예식... 피로연뒤 가족놀이 축의금 보통 20~30원씩... 신혼부부에 그릇등선물 많아 중매보다 자신이 배우자선택... 만수대분수대서 밀애

만나면 그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평양사람들은 집에 전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

향미양은 부모들이 평양 근교에 살고 있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이가 가까워진 형식은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부모들은 이 결혼을 반대했다. 형식군의 부친은 『그 처녀는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부모들이 시골에 살고 있고 처녀는 재봉사가 아닌가. 평양에서 그보다 나은 처녀를 찾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형식군은 『어떻게 해

양가는 약혼식을 한뒤 결혼날 짜를 정했다. 북한사람들은 결혼식을 집이나 식당에서 하면서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다. 형식군의 집이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결혼식탁에는 신랑신부의 상징인 구운 수탉과 암탉이 놓였다. 형식군이 애연가여서 수탉의 부리에 담배 1개비를 붙여 놓았고 암탉의 부리에는 아들을 낳으라는 뜻으로 고추를 물렸다. 그옆에는 평양술과 「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결혼과자 사과 배 감 토마토 그리고 농민시장에서 구한 잉어 한마리가 큰 접시에 놓

그릇등을 선물로 주었다. 신랑신부는 예물을 교환한뒤 들러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신랑은 신부에게 술을 한잔 따라 주었다. 신부는 신랑의 부모에게 술잔을 올렸고 부모들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살아라』며 술을 마셨다.

“축복가”로 장래 축하

이런 예식이 끝난뒤 모두 기념촬영을 했다. 음식을 먹으면서 손님들은 신랑 신부에게 술과 맥주를 권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북한에서 인기가 높은 「축복하노라」라는 노래였다.

인지 알아보자』고 말했다. 신랑신부가 떡을 물려 하자 속부는 갑자기 젓가락을 빼내 입을 맞출때까지 계속했고 이를 본 친척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결혼피로연이 끝나자 친척들은 「축하」라고 쓴 봉투를 놓고 갔다. 가까운 친척들은 1백원(북한 노동자평균 임금 80~1백원)이상을 내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은 20~30원씩을 냈다. 신부는 시아버지에게 양복을 선물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옷감을 주었다. 두사람은 결혼후 부모와 함께 살았으나 아이를 얻은후에는 분가를 원하고 있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들러리와 사진촬영

신랑신부 옆에 들러리들이 나란히 앉은 다음 형식군 숙부의 사회에 따라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은반지를 주었고 신랑은 전자손목시계(북한 조총련교포 합영회사제품)를 받았다. 손님들은 신랑신부에게 탁상시계 다리를

『좋은 때 좋은 날 맺어진 사랑/한쌍의 꽃으로 붉게 피었네/축복하노라 그대들 새가정/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결혼식은 1시간30분 정도가 걸렸다. 신부는 모든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인사를 했다. 손님들이 떠나자 가족끼리 놀이가 시작됐는데 신랑의 숙부가 젓가락으로 떡을 들고 신랑 신부 머리 사이에 놓고 『누가 주인